

세계 미술계의 '만남의 장'

- 제49회『2001년 베니스비엔날레』국제미술전을 보고

임 형 준 | 국제교류팀 직원

베니스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차가 없는 세계 유일의 도시이며 베니스가 물씬 하게 자아내는 독특한 매력 때문에 방문객이 연중 내내 끊이질 않는 곳이기도 하다. 베니스비엔날레도 문화 관광도시인 베니스의 성격을 바탕으로 착안된 행사로서 순수 미술행사와 관광의 연계를 꾀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비엔날레의 출발은 1895년 이탈리아 황제부부의 은혼식 기념을 계기로 베니스 시의회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베니스의 지식인, 시장, 기업인, 예술가가 함께 기획한 사업이고 지금은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건축 음악 연극 등 5개 분야의 비엔날레가 열린다.

『2001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개황

『베니스비엔날레』 제49회 국제미술전은 지난 6월 9일 이태리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에서 공식 개막되었으며 오는 11월 4일까지 5개월 간 계속된다. 올해 세계 70개국 120여명의 작가가 참가한 『베니스비엔날레』는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와 함께 세계3대 비엔날레로 손꼽히며 1895년 설립된 이래 전통과 영향력 면에서는 그 어느 국제미술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각국의 작가, 큐레이터, 갤러리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과 매회 수십만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미술계의 올림픽'이라 불리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크게 국가관전시와 아르세날레전의 두 종류 전시로 구성된다. 금년의 경우 국가관전시는 자국가관을 소유한 30개국과 자국관이 없어 별도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는 19개국이 참가했으며 아르세날레전은 이전에 선박 제조 공간으로 쓰이던 거대한 장소를 공간 활용, 개별 작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공식 전시 외에도 베니스비엔날레의 국제적인 명성을 의식, 크고 작은 독립미술전이 베니스시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금년 비엔날레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본 49회는 21세기 들어 처음 있는 비엔날레로 이 전시 총감독이자 전시기획자인 하랄트제만은 '인류의 지평'이란 주제를 선정, 지난 20세기 미술에 대한 회고와 21세기 미술의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48회에 중국 작가들을 대거 선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만은 이번 전시에는 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해 국제 미술계에서 소외되었던 제3세계 지역의 젊은 무명 작가들을 다수 참여시켰다. 아울러 이번에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라, 사이 톰블리 등 지난 세기 큰 족적을 남긴 대가급 작가들도 초청되었다.

세계 미술계 인사들의 '모임의 장' 시사회 기간

6월 9일 공식개막식에 앞서 열린 시사회 기간(2001.6.6 6.8)인 3일 동안은 각국 작가와 커미셔너들이 그 동안 준비해온 자신들의 전시작품을 언론과 전문가 집단에게 평가받는 자리이다. 이 기간 중 수상 여부가 결정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미술계 인사들, 유수언론, 콜렉터 등이 모이기 때문에 세계 미술계의 '모임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또 세계 최대의 예술시장인 바젤 아트페어가 베니스비엔날레 시사회 직후 개최되기 때문에 미술계 인사들은 베니스를 으레 거쳐갈 수 밖에 없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작가간 국가간 경쟁은 치열하다. '세계 미술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만큼 수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작가와 국가의 미술적 위상이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1993년 독일관 대표로 참가한 백남준이 황금사자상을 받았으며 한국관은 1995년 문예진흥원에 의해 개관된 이래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이 3회 연속 특별상을 수상해 한국 미술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올해 한국관은 지난 6월 7일 오전 11시 30분에 김정옥 문예진흥원장 주재로 공식 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인사 3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으며 김석현 주 이태리대



베니스비엔날레 정문에 위치한 현판

사, 홍라희 삼성미술관장, 성완경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위원, 토마스 크랜즈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장, 작가 데미안 허스트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또 같은 날 오후 페기구겐하임 박물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빙해 작가 홍보리셉션 오찬을 열기도 했다.

한국, 한국작가,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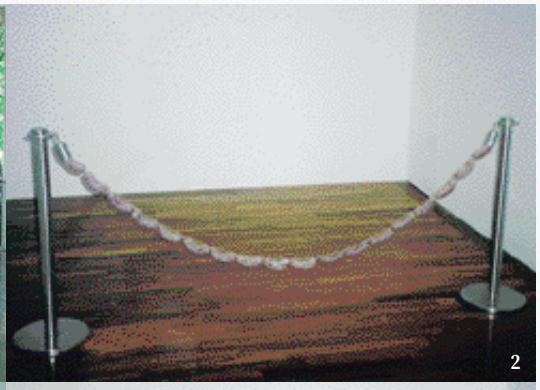
올해 한국관 전시에 출품한 작가는 서도호, 마이클 주 두 작가이다. 서도호는 원로화가 서세옥의 아들로 한국에서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도미하여 독특한 작품세계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젊은 작가이다. 한국관에 그가 출품한 작품은 동상을 놓는 거대한 좌대를 위는 비워놓고 역설적으로 청동으로 만든 작은 인간군상들이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공인들>이란 작품을 한국관 앞뜰에 설치하고, 혈액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록된 군번표 10만개를 거대한 갑옷으로 형상화한, 관객들이 작품의 일부를 발로 밟으며 감상할 수 있는 <썸/원>, 그리고 벽지에 지름 1㎜의 작은 인물들로 빼곡이 가득찬 <우리는 누구인가>를 출품했다. 특히 <썸/원>은 발상의 참신함과 조명과 금속성이 절묘히 결합된 강렬함으로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서도호가 제만에 의해 선정되어 본 전시에 출품한 작품은 <공인들>과 유사한 컨셉인 *Floor* (바닥)으로 수천개의 작은 인간군상들이 두께 2㎝의 유리판을 받치고 있으며 관객은 이 바닥 위를 걸어다닐 수 있다. 이 작품은 베니스비엔날레 소식지의 표지에 게재되기도 했을 만큼 반응이 좋았다. 박경미 한국관 커미셔너는 서도호의 작품세계를 "사회 집단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한 인간의 자아와 그것을 지배하는 사회 문화적 공간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과 결합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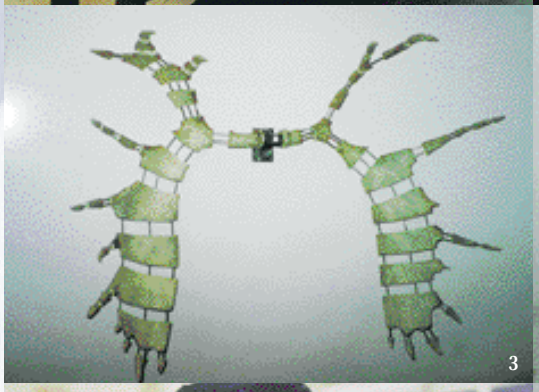


한국관 개막식에서의 김정옥 문예진흥원장 축사. 왼쪽부터 김석현 주 이태리대사, 박경미 커미셔너, 서도호, 마이클 주, 정도련 코디네이터

또 다른 출품작가 마이클 주는 한국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줄곧 성장하였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과학과 예술적 사고로 접목시키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한국관에 출품한 작품은 모두 4점으로 <나무> <개량된 선반> <접근 · 거부> <가족> 등이다. 특히 가장 이목을 끄는 작품은 한국관 중앙에 설치된 <나무>로 지름 1.4m, 길이 13m짜리 통참나무를 가로 세로로 잘게 절단해 다시 쇠봉으로 연결했으며 전시공간을 넘어 한국관 테라스까지 연결해 '경계를 뚫고 내부에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한 작가는 유리창이 많은 한국관 구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가족> <접근 · 거부> <개량된 선반>과 같은 작품들을 유리 전시장처럼 연출하여 전시하는 데 성공했다. 작품 <가족>은 4명의 가족동상이 모두 다른 모습으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가족의 일체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개량된 선반>은 사슴뿔을 절단, 재결합하여 나무와 또 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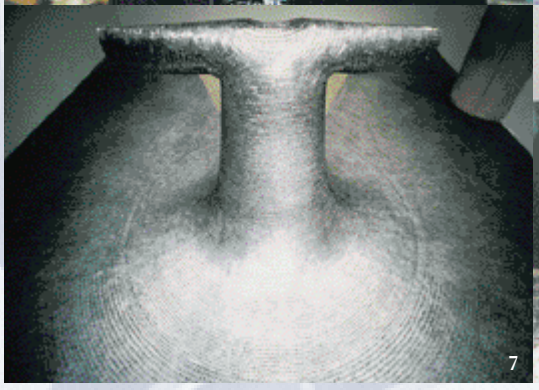

2


3


4


5


6


7


8

1 마이클 주의 <나무> **2** 마이클 주의 <접근 · 거부> **3** 마이클 주의 <개량된 선반> **4** 마이클 주의 <가족>
5 마이클 주 **6** 서도호 **7** 서도호의 <썸/원> **8** 서도호의 <공인들>



베니스비엔날레 뉴스레터 표지로 사용된
서도호 작품 <floor>

른 의미의 자연과 인공간의 결합을 표현한다. 박 커미셔너는 마이클 주의 작품세계를 "파편과 전체, 인공과 자연, 파괴와 치유, 동양과 서양 등 서로 상반되는 모든 요소들의 공존 속에서 발견되는 근본적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라 평한 바 있다.

한국관에 관람 온 한 미술계 인사는 서도호의 작품이 아름답고 강렬한 것이라면 마이클 주의 작품은 관객을 깊은 사고로 유도케 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마이클 주, 서도호 두 작가 공히 시사회 기간 동안 뉴욕타임즈, 뉴스위크 등 세계 유수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서도호는 프랑스의 미술 전문지 『아트프레스』가 선정한 올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주목할 6명의 작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반인에게 한층 가까워진 한국관

시간, 거리,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베니스를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하면 베니스비엔날레와 한국관을 방문할 수 있다. 비엔날레 주최측의 홈페이지는 www.labiennale.org이며 출품 작품들에 대한 사진과 소개가 영문과 이태리어로 실려있다. 문예진흥원(www.kcaf.or.kr)이 운영하는 한국관 홈페이지는 www.korean-pavilion.or.kr이며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된다. 2001년 4월 대폭 보완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홈페이지는 현재까지 약 7천여명이 다녀갔으며 이전 비엔날레 사이트 링크, 금회 출품 작가와 커미셔너, 한국관 및 베니스비엔날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작가의 도록이 한정된 매수로 인쇄된 것을 감안, 작가도록에 실린 모든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최근의 한국관 개막식 장면들도 실었다.

또 두 작가 홈페이지(서도호 : www.doho-suh.com, 마이클 주 : www.michaeljoo.com)와도 링크하여 작가와 일반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도록 노력하였다. 문예진흥원은 본 홈페이지를 통해 베니스 현지의 생생한 소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통적인 회화는 물론 설치작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현대미술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 주목되는 흐름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작품들이었다. 특별상을 수상한 캐나다관은 작은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가상과 현실을 착각하도록 절묘하게 구성된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스라엘관은 한 방의 사면이 화면으로 꾸며지기도 했다. 21세기에 인터넷과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물씬 보여 준 전시라는 느낌이 들었다.

요컨대,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이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베스트 셀러인 「죽기 전 꼭 해야할 100가지」라는 책에 한 항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단 미술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베니스비엔날레와 한국관을 관심있게 지켜보기를 권하고 싶다.